

Newsletter

October 2026

Contents

Audit

- '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Accounting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공표
- 금융감독원,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앞두고 도입 준비 점검 당부
-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5차) 공개
- IASB 위원 초청 K-IFRS 제1118호 투자자 세미나 개최 및 영상 공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등 의견조회
- '26.9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 결정 번역 자료 공개

Tax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6년 3,4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 한국개발연구원(KDI), '26년 한국경제 3.2% 성장 전망



‘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은 2027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직접 감사인 지정결과 등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공문을 확인하고 감사인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공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or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26.11.12 본통지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총 76개사의 위반이 발견되었고, 9개사는 감사인 지정, 67개사는 경고, 주의 조치되었습니다.

- (위반 사유) 조치대상자의 위반은 대부분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평가)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으로 제도가 안정,정착되어 위반회사는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24회계연도는 위반회사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회사) ①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②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추가로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 유무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공표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의결('26.9.4.)을 거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을 '26.9.23.자로 공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 ①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신설(문단 한79.1)
- ② 공개된 공시지가를 활용해 기업의 작성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자자의 토지 가치 정보 접근성을 제고
- ③ '26.12.31.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하며,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비교정보도 공시

[더 알아보기 →](#)

금융감독원, 2027년 K-IFRS 제1118호 시행 앞두고 도입 준비 점검 당부

금융감독원은 '27.1.1.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도입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했습니다('26.10.13.).

■ 주요 내용

- ① 기업은 영향분석, 주요 회계정책·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비교정보 산출 및 검증, 미비점 보완 등 5단계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 ② 동 기준서는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 필요
- ③ '26년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26년 재무제표(3분기부터)에 신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

[더 알아보기 →](#)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3~5차)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8호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착지원 TF의 논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순차 공개하고 있습니다. TF는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기업,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기준서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운영됩니다.

■ 주요 내용

- ❶ 3차 TF 논의 내용('26.7.16. 공개): 고객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단위, 국내 보험회사 대출활동의 주된 사업활동 해당 여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범주 분류를 논의
- ❷ 4차 TF 논의 내용('26.8.18. 공개): 주된 사업활동 판단 시 개별 자산·자산집단의 평가, 정비사업조합 대여금과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자자산의 손익 분류,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 판단 및 손익 분류,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의 손익 분류를 논의
- ❸ 5차 TF 논의 내용('26.10.16. 공개): 교환사채 내재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분류, 별도 파생상품의 자금조달거래 관련성 판단, 관계기업 관련 금융상품의 손익 분류, 전대리스 시 상위리스의 변동리스로 분류,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부동산의 임대수익 분류, 기타부채의 외화환산손익 분류를 논의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더 알아보기 ③ →](#)

IASB 위원 초청 K-IFRS 제1118호 투자자 세미나 개최 및 영상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26.10.13. 닉 앤더슨 IASB 위원을 초청하여 K-IFRS 제1118호 투자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IFRS 18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구분한 손익계산서의 투자 분석 활용방안, 국내 기업의 적용 이슈와 실무적 영향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새로운 영업손익의 분석 활용, 기존 재무데이터와의 비교가능성 확보, 기업가치 평가 및 신용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등 의견조회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 ❶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선택권 개정'('26.9.8. 등록)
- ❷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개정 공개초안('26.7.15. 등록)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26.9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 결정 번역 자료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26.9.30.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번역자료 8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26년 1월 및 4월 회신된 사안으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관련 적용 이슈 4건과 금융상품·리스 등의 회계처리 이슈를 포함합니다.

■ 주요 내용

- ❶ **성격별 비용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범위**: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한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 IFRS 18 문단 83의 성격별 비용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됨을 설명
- ❷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주된 사업활동 평가**: 종속기업 투자·관리 등이 유일한 실질적 사업활동인 사례에서,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투자 관련 수익·비용을 별도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고 설명
- ❸ **연결실체 내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 분류**: 내부대여금과 관련 수익·비용을 연결에서 제거한 후 남은 외환차이에 대해, 영업 범주로 분류하거나 제거 전 수익·비용이 분류되었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두 가지 접근을 설명
- ❹ **외화위험 관리 파생상품의 손익 분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도 관리대상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며, 제시된 순외화부채 위험관리 사례에서는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고 설명
- ❺ **거래원가의 판단과 회계처리**: 금융상품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법률·자문 수수료도 거래원가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
- ❻ **내재 중도상환옵션**: 금융부채에 포함된 중도상환옵션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IFRS 9 문단 B4.3.5(e)(ii)의 상실 이자 관련 요건에서 '기업'은 대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
- ❼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의 경제적 효익**: 고객이 약정기간 내내 배터리 전체 용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충전·방전의 시점과 규모를 지시하는 사례에서, 고객이 배터리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
- ❽ **공정한 표시와 IFRS 회계기준서의 준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IAS 1에 따라 기준서 요구사항에서 일탈하는 기업도 공정한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해석위원회는 해당 상황이 드물게 발생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더 알아보기 ③ →](#)

[더 알아보기 ④ →](#)

[더 알아보기 ⑤ →](#)

[더 알아보기 ⑥ →](#)

[더 알아보기 ⑦ →](#)

[더 알아보기 ⑧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부처협의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11개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하고 ISA 계약기간·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며,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조정,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연장 등이며,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공인회계사가 본 '26년 3,4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회계정책연구원은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한 '26년 3분기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3분기 BSI(현황): 113 (전분기 대비 2p 하락, 경기 확장세를 유지)
- 4분기 BSI(전망): 113 (신중한 낙관론)
- 경기 확장의 주요 원인
 - 반도체 중심의 수출·생산·투자가 실물경기를 받침
- 산업별 현황 BSI
 - 전자(155), 조선(139), 정보통신(121), 식음료(114), 기계(114) 등으로 대다수 산업에서 긍정적
 - 석유화학, 건설 등은 장기 부진 지속
 - 산업별 전망 BSI에서도 전자(149), 조선(132), 정보통신(127) 등으로 조사되어, 건설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체감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정부의 정책 변화,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
- 리스크 요인
 - 환율 변동성 및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더 알아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 '26년 한국경제 3.2% 성장 전망

KDI는 최근 발표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황에 주로 기인하여 '26년에 3.2%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7년에도 2.2% 성장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주요 전망 수치
 - 민간소비 2.3% 증가, 설비투자 7.9% 증가, 건설투자 0.1% 증가
 - 수출 8.7% 성장,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 소비자물가 2.7% 상승, 취업자 수 11만명 증가
- 전망 배경
 -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
 -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
 - 민간소비는 실질총소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가 반도체 관련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개선세가 비교적 완만
 -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 관련 부문에 경제성장이 집중됨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고용 여건의 뚜렷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강화로 시장금리도 상승
 - 세계경제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AI 관련 투자 확대가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
- 전망의 위험 요인
 -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
 -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재차 격화되어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경우 경기 개선세가 제약될 가능성
 -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될 경우,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약될 가능성

[더 알아보기 →](#)

Contact us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